

건강 칼럼

드림렌즈

각막 굴절 교정술 렌즈, 즉 일반적으로 드림렌즈라고 부르는 렌즈는 특수한 디자인의 하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여 각막의 굴절률을 변화시켜 시력을 교정하는 시술이다.

일반적으로 각막조직의 탄성력이 좋은 소아들이 성인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특히 낮 시간에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간편성과 소아에서 근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측면, 그리고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여러 장점으로 인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각막 굴절 교정술은 수면 직접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여 6~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나면 특수한 디자인의 렌즈가 각막의 상피를 눌러 각막곡률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처음 착용 이후 2.00 디옵터의 근시에서는 약 95%가 일주일 이내에 0.8 이상으로 시

력이 호전되며, 일반적으로 굴절교정술 렌즈의 적용 마지노선인 -4.00 디옵터에서는 약 70%에서 0.8 이상으로 시력이 호전되어 대부분의 경우 약 1개월째에 안정적인 시력교정효과를 보인다.

다만 이러한 굴절교정술 렌즈 적용의 경우 근시의 진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시의 진행속도가 비착용자에 비해 느려지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렌즈착용 후에도 일정시간이 경과해 근시가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 기존 렌즈를 교

체해주어야 한다.

환자의 굴절이상, 즉 근시 정도가 높거나(-4.00~-6.00 디옵터 이상) 심한 난시가 있는 경우(-1.50 디옵터 이상) 야간의 빛 번짐, 각막염, 낮 동안의 시력저하 및 시력의 일 증변동 등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안구건조증이나 알레르기 결막염이 기존에 있던 환자의 경우는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검사서 적용가능성 및 안전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가 필수적이다.

콘택트렌즈 착용의 특성상 감염성 각막염 등의 발생가능성이 비 착용자에 비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전 공중과 보도로 인해 이슈가 된 것과는 다르게 각막염 등의 부작용 발생빈도는 정확한 착용방법과 이상증상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보호자 및 환자가 정확히 이해하며 또한 정기적인 안과검사를 통한 렌즈의 변경여부 확인 및 안과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막 굴절 교정술 렌즈의 장단점과 적응증을 바르게 파악하고 안과전문의와의 상담과 세밀한 검사를 통해 이러한 술기를 적절히 적용한다면 렌즈를 이용한 각막 굴절 교정술은 굴절교정수술을 시행할 수 없거나 근시진행이 빠른 성장기 소아의 경우 굴절이상을 적절히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전중화

계명대 동산병원 안과 교수

독자재언

청소년 음주·흡연 제재 우리모두가 나서야 할 때

최근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가출, 학교폭력, 자살, 성인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의 술, 담배 문제는 자신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절도, 강도, 폭력 성범죄 등의 다른 청소년 범죄와도 복합적으로 연루 되어 있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 있어 음주와 흡연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청소년들이 흔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년기의 음주·흡연은 육체적으로 건강에 해를 주고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시기에 집중력 감소를 유발하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장에 방해할 수 있다.

처벌에 의해 청소년 음주·흡연을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음주와 흡연을 했을 경우 청소년보다 판매업자가 영업정지나 벌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처벌보다는 각 연령별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에 개인의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청소년기 음주·흡연은 건강에

평생 영향을 주는데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끊임없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합동으로 흡연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의 경험을 통한 진실한 흡연의 단점을 깨우치게 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감소성이 풍부한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위에서 이러한 행위를 보면 내일이나 내일이니 상관없어 내 자식일이나 내 자식일이라는 무관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 사랑과 관심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막아야 할 것이다

흡연식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청소년의 관리 감독과 학생들의 일탈이 열려되는 불안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젖어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이기에 청소년들이 음주에 빠지게 하기 보다는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예라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독자재언

청소년 성매매 채팅앱 대책 마련해야

최근 유명 국회의원의 아들이 SNS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보면 가출청소년을 암시하는 글을 다수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성매매에 악용이 우려되는 채팅앱이 39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운영됨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여 감금, 성매매강요 등 제2차 범죄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이 3678명에 이한다고 한다.

2012년 1048명, 2013년 823명, 2014년 760명, 2015년 710명, 2016년 5월까지 337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은 성적 이해가 부족하고, 불법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강화 및 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청소년보호 의무조항 신설 등 청소년 성매매 유입 환경 차단을 우선시키고,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매수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청소년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활동 및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 등 어른들의 관심이 시급한 때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들은 나의 가족, 나의 조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성매매 근절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쌀값 폭락 문제 해결책 이래서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농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 게 아니다.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으로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쌀값 폭락을 해결할 책임이 정부에 있지 전북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 이대로 앞전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가 이번에도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았구나 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쌀값 폭락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변동직불금'을 사상 최초로 잡았다는 소식이다. 올해 1조4900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1조 5168억 원이라는 보고이다. 사상 최대의 액수라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돌아가지 못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전북도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전북 쪽에 배정된 액수는 겨우 2513억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농민들의 편에 서야 한다. 농심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

고 역지사지해야 한다. 그래서 전에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전북 농정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궁금하다. 쌀 농사가 갈수록 위기 쪽으로 내리닫고 있는데 정부의 처분만 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고통을 기증시키는 것밖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전북도는 그동안 삼락농정의 가치를 내세우며 농가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해왔다. 그런데 이게 뭐란 말인가. 농민들은 계속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전북도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농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현실을 보면 답답한 게 하나 둘이 아니다. 농가를 위해 도움을 주는 대책을 세우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현실은 예전보다 오히려 못하다. 소극적인 것도 어지간해야지 다른 지자체와 늘 비교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입을 다문 채로 있지 말고 할 말을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이 농도이고 최고의 곡창지대면 뭐하는가. 전북도는 도내 농민을 위해서 실익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 바란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중지를 모아야

청년층의 탈전북 현상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각박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궁금하다. 저번에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전북도와 각 시군은 그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다. 지난날 이같은 물음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여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 할 말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가. 현실이 이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이제 세는 싸늘하다. 현재 도내 청년 고용률은 34.1%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의 평균 청년 취업률 42.3%와 비교된다. 이렇게 도내 청년 고용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정신차려야 한다. 혁신도시의 공공

기관들 역시나 그렇다. 다들 청년 고용에 동참해야 한다. 언론사가 일자리 현황을 물어볼 때만때만 애쓰는 척 할 게 아니다. 청년 고용 열기가 식지 않도록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도내에 일자리가 부족하니 탈전북 가속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청년 실업이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미취업자들은 전북도가 때때마다 발표한 실업률의 수치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대졸자 열 명 중 네 명이 백수인 게 팩트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찾기에서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이나 인생 설계 같은 장래 희망을 말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